

'3퇴'와 평안

제214기 2015년 6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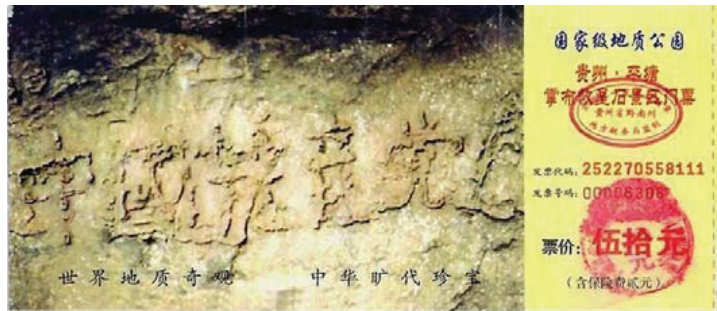
‘9평 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심도있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했다. 2015년 6월 1일까지 2억 495만 명의 중국 민중이 해외 대가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했다.

단위 서기, “나는 탈퇴했다! 나는 평안하다!”

[밍후이왕] 많은 중국 사람은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단어를 보고 들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 하며, 3퇴해야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큰일을 알려주는 것이다. 3퇴란 바로 퇴당, 퇴단, 퇴대를 뜻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하늘이 중공을 멸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3퇴한 후에는 감격에 찬 말로 기쁨을 표현한다.

단위의 서기, “나는 탈퇴했네! 나는 평안하네!”

나는 큰 쇼핑센터 맞은 편 도로에서 기질이 비범한 아저씨를 만났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 “아저씨, 3퇴하면 평안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라고 물으면서 진상을 알렸다. 열심히 듣고 진상을 알게 된 아저씨는 3퇴에 동의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나는 탈퇴했네! 나는 평안하네! 나는 탈퇴했네! 나는 평안하네!”라고 연달아 외쳤다. 원래 직장에서 사당(邪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 주고 있다.

黨) 서기였던 그는 많은 주위 사람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향해 팔을 흔들며 “50년 동안 서기로 있던 내가 탈퇴했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한 여성, “나는 파룬궁에 정말 감탄합니다.”

예쁜 중년 여성이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파룬궁이 박해 받고 있는 진상을 알렸다. 그녀는 “만약 모두가 진선인(真善忍)을 배웠다면 부패 공무원들이 돈을 트럭으로 실어내는 일이 나타났겠어요?

만약 모두 파룬궁처럼 한다면 오늘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겠어요? 나는 파룬궁에 정말 감탄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고, 열정적으로 나의 팔을 흔들면서 “오늘 당신을 만난 건 저의 복입니다! 탈퇴, 탈퇴하겠어요! 전부 탈퇴하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또 “정말 오늘 당신을 만난 건 저의 복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공산당이 제일 지겨워요”

한 여성은 진상을 들은 후 “나는 단원인데 탈퇴할게요! 나는

공산당이 제일 지겨워요. 백성을 위하는 일은 안 하고 헛소리만 하면서 부패에만 이골이 났죠! 백성 것을 먹고, 백성 것을 가지면서 백성만 못살게 해요! 나는 어디에 가든 공산당이 나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한 대학생, “저는 입당하지 않을 겁니다. 출국할 겁니다!”

나는 함께 다니는 대학생 세 명과 마주치게 되어 그들에게 간곡하게 말했다. “학생들, 기회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구이저우 장자석이라고 검색해 봐요. 과학자들은 장자석 단면에 새겨진 ‘중국공산당 망’이란 글자 6개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밝혀냈어요. 돌에 글자가 나타난 이야기를 안 해도 국민들은 공산당이 끝났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공산당은 사람들을 돈 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만들었고, 국민들이 낸 세금 대부분은 중공 탐관들 주머니로 들어 갔어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모른 채하면서 선행을 하는 사람은 간섭하지요. 이런 사회가 정상인지 한 번 말해 보세요. 천안문 분신자살이라는 날조된 사건은 지금도 교과서에서 학생들을 독해하고 있어요. 저우융강, 보시라이, 리둥성, 쉬차이허우 같은 파룬궁 박해 주동자들이 걸으로는 부패음란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파룬궁을 박해해서 보응을 받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진실한 재능과 학식으로 출세해서 부자가 되어 가족을 부양하기를 바라고, 절대로 공산당에 기대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죽음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래요. 만약 여러분이 출국한다면 절대 자신을 공산당원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느 국가에서도 영주권을 주지 않아요.” 세 대학생은 모두 3퇴하고 봉쇄돌과 소프트웨어를 가져갔다. 한 학생은 “저는 입당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출국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기록영화 ‘생체적출’, 피바디상 수상

[밍후이왕] 2015년 4월 23일, 기록영화 ‘생체적출’(영문제목 ‘다윗과 골리앗’)이 미국에서 제74회 ABC TV 문화공로상(Peabody Award)을 수상했다. 미국 ABC TV 문화공로상은 전 세계 방송TV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이며 방송TV계의 풀리처상으로 간주된다.

‘생체적출’은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캐나다 전 국회의원 데이비드 킬고어가 중국 내 생체 장기적출의 진상을 조사하며 쏟은 각고의 노력을 보여 주며, 중국 대륙에서 장기를 이식하고 돌아온 환자 몇 명의 독점 인터뷰가 포함돼 있다.

2015년 4월 7일, 호주 공영방송 SBS는 저녁 9시 반부터 10시까지 황금시간대에 방영되는 ‘데이트라인’을 통해 캐나다 기록영화 생체적출의 일부 내용을 방송했다. 이 기록영화는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해 폭리를 취한 중공 당국의 조직적이고 잔학한 범죄행위와 검은 내막을 폭로했다. 이 기록 영상은 각계에 충격을 주었고, 호주 주류 언론이 앞다투어 이 내용을 전하자 호주사회 각 계각층의 관심이 쏟아졌다. 그들은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불법 절취해 폭리를 취한 중공에 대해 잇따라 놀라움과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기록영화 ‘생체적출’ 광고지

해외 메일주소 freeget.ip@gmail.com (제목을 비우지 말 것)로 메일을 보내면 10분 이내에 IP주소 몇 개를 얻을 수 있다. 봉쇄사이트를 돌파하고 밍후이왕 www.minghui.org에 방문하면 더욱 많은 진상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홈페이지에서 자유문, 무계 등 여러 ‘돌파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나중에 올라가기가 더욱 편리하다.

생사의 문턱에서, 완고했던 나는 마침내 변했다

[밍후이왕] 나는 현재 60세이며 3년 전부터 파룬파를 수련하고 있다. 우리 가족 4식구 중 나를 제외한 아내, 딸, 아들은 2005년부터 잇따라 파룬궁을 수련했다. 하지만 성미가 급한 나는 아내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파룬궁을 수련하면 이혼한다!’고 큰소리를 쳤다.

2012년 3월, 나는 1차 종양수술을 받았고 뒤이어 급하게 2차 수술을 받았다. 3일 후 병원 측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악성 종양으로 치료약이 전혀 없으며 나를 퇴원시켰다. 20일이 지나자 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다. 가족이 또 병원을 찾아 갔지만, 담당의사는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런 병은 우리 의사들이 걸러도 속수 무책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환자가 3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는 동안 아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대법의 아름다움을 이



2015년 5월 17일, 파룬궁 수련생들이 인도네시아 바탐섬 신아오칼리 공원에서 단체연공을 하고 있다.

기해 주었지만, 나는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 ‘당신네 대법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병원이 왜 필요해!’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나 병의 실상을 알게 된 나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내가 뒷일을 부탁하자 아내는 내 말을 막으며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은 대법

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고, 우리 사부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내가 반박하지 않자 아내는 이어서 ‘우리가 먼저 식사를 한 다음에 내가 대법책을 읽어 드릴게요. 당신은 잘 들으세요. 알았죠?’라며 어린애를 달래듯 말했다. 나는 속으로 ‘이 지경이 됐으니 당신 체면이나 봐주지.’라고 생각하면서 “좋

아, 당신이 읽어 봐요. 내가 들을 테니!”라고 말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나는 밥 한 공기를 깨끗이 먹어 치웠다. 내가 병에 걸린 이후로 한 번도 못 했던 일이었다. 처음 연공을 시작하자 마치 전신에 한 가닥 전류가 요동치는 것 같았는데, 두 팔의 감각이 특히 강했고 아주 편안했다. 그 후부터는 손도 잘 움직일 수 있었고 허리도 아프지 않았으며 안색도 아주 빨리 변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마음은 가볍고 몸은 편안해져 나의 온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대법은 나를 개변시켰고 주위의 사람들은 대법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게 되었다. 특히 수련하기 전 너무나 완고했던 나를 기억하는 형제자매들이 파룬파와의 신기한 효과가 내 몸에 나타나자 모두 3퇴를 하고 대법서적 전법륜을 학습하게 되었다.(글/대륙 파룬궁 수련생)

대법제자를 보호한 마을 관리가 복을 받다

[밍후이왕] “아, 장쑤 안녕하세요!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류 회계님, 좋은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지난 2~3년 사이에 제가 큰 복을 받아서 오늘 특별히 저녁식사에 당신을 모시려고 합니다. 사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장쑤(張旭)가 복을 받은 일을 말하자면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는 올림픽이 임박한 때였다. 각급 정부는 파룬궁 탄압을 강화하라는 비밀명령을 받았다. 당시 장쑤는 대대(당시 행정단위이며, 소대 단위의 마을이 몇 개 모여서 한 개 대대로 됨)의 치보주임이었다. 이때 장쑤는 이미 파룬궁이 박해당하는 진상을 알고 있었고, 그의 온 가족도 3퇴를 했다. 몹시 난처해진 장쑤는 생각했다. ‘안 잡으려니 보고하기 어렵고, 잡아들이자니 모두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그렇지. 확성기로 외치자. 그렇게 모두 피하도록 하면 된다.’

그래서 그는 확성기로 방송했다. “집에 파룬궁 수련자가 있거

나 파룬궁 사람이 왔다면 모두 움직이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곧 잡으러 갈 테니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곧 도착합니다.” 장쑤가 이렇게 외치자 개발구 사람들이 모두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매번 조용히 파룬궁을 잡더니 오늘은 외쳐대네?’라며 의아해했다. 장쑤는 곧 개발구의 경찰에 잡혀갔다. 파출소에 들어서자 소장이 “간이 크구만. 감히 확성기로 떠들다니. 죽고 싶어!”라며 욕을 퍼부었다. 참다 못한 장쑤는 “소장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소장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저를 미워하십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떠들지 않으면 그들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면 소장님은 걱정을 떨치지 않나요? 정말 사람을 잡아 오면 사람을 어디에 가둘 겁니까? 오늘 한 집에서 찾아오고 내일 또 한 집에서 가족을 내놓으라고 하면,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귀찮겠습니까? 안 귀찮겠습니까? 상급에서 조사하러 오면 아직도 파룬궁이 있나면서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질책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외쳐서 모두 가버리면 소장님은 걱정을 떨고, 상급에서 내려와도 아무 일이 없으니 누구도 소장님을 귀찮게 안 할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고 소장도 느끼는 바가 있어 “맞아.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당신 참 유능하군. 대단한 솜씨야.”라고 말했다.

장쑤는 대법제자를 보호해 복을 받았다. 다른 집 아이들보다 학과성적이 특별하지도 않던 그의 두 아이가 잇따라 명문대에 입학했다. 아들은 졸업한 후 공무원에 합격했고, 딸은 베이징대학을 졸업하고 베이징에서 취직했다. 장쑤는 이듬해에 마을 지부서기로 선출된 후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만족하고 있다.

장쑤는 기뻐하며 나에게 “회계님, 다행히 당신이 파룬궁의 좋은 점을 알려주고, 3퇴를 시켜주는 바람에 나는 파룬궁의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류마티



조롱박 조각 특작: 매화가 복을 전하다
스와 심장병 통증으로 고통받으면서 170cm 키가 156cm로 작아지고, 손이 닭발 같이 되고 걸음도 걷지 못하다가 ‘파룬파파 하오(法輪大法好), 쩌란런 하오(真善忍好)’를 얻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고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모두 대법 덕분이지요!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갖다 주신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